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저녁 이옥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세계를 다니며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셨습니다. 다른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전 세계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나신 이옥선 할머니는 15살 나이에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시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누워 계실 때도 수요시위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면 수요시위가 1700차를 맞습니다. 3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생존자들과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이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외교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니께서 영면에 드신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옥선 할머니를 떠나보냅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해 더욱 애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본부장 이수진·백혜련)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 세계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본부장 이수진 · 백혜련)